

패션감각이 없어서 종종 괴롭다. 친구와 백화점에라도 가면 고르는 게 하나같이 어찌 그 모양이냐며 통박을 먹기 일쑤다. "이건 색깔이 칙칙하고, 또 이건 하모니 개념이 없다"는 식이다. 보통은 그냥 듣고 넘기지만, 중요한 날 기껏 차려입고 나온 의상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 엔돌핀 지수만 높여줄 때가 있는데 그런 수모를 겪고 나면 "그냥 포기하고 살자"는 생각을 다지게 된다.

사실 우리가 아는 패션이란 게 드라마 주인공들이 걸쳤던 옷을 '언어 입는' 수준은 아닐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몇몇의 유형 속에서 너도나도 비슷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에 상호 구별이 삭제된 몰개성의 풍경을 자주 목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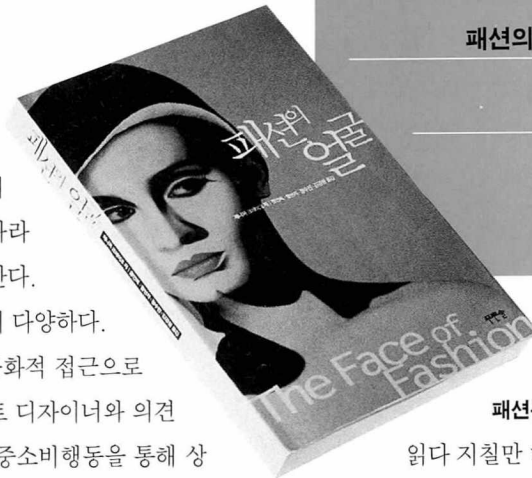
패션 분석에 다양한 관점 동원해

이래저래 패션에 대해선 신경을 쓰고 하는데 《패션의 얼굴》을 접하게 됐다. 관심 외의 물건이지만 그럴 듯한 포장을 보니 구미가 당긴다. '패션의 얼굴', 뭔가 적나라한 진실을 말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다양하다. 우선 문화연구자들은 패션에 대한 하위문화적 접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은이는 패션이 엘리트 디자이너와 의견 선도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비행동을 통해 상향전파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철학자나 사회학자는 신체의 위상화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친 저작으로 여길 것이고, 인류학자는 복식체제와 화장술의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선택하고 실현하기 위해 옷과 화장품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젠더 정체감이 형성되고 여성성이 만들어진다"는 지은이의 관점이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적극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 디자이너들은 어떨까? 니트 수영복에 접점은 스커트와 벨트를 맨 1930년대의 여자들에게 실소를 보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눈이 있는 이라면 똑같은 의상과 머리 모양과 몸짓으로 촌스럽게 웃고 있는 웨일즈 소녀들에게서 다이어트와 불규칙한 식사를 생활규범으로 삼게 된 오늘날 부녀자들로 이어져 내려온 닳은꼴 억압구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일이 잠재독자의 기대지평을 상상해보는 이유는 이 책이 비록 신중 분석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론서임엔 틀림없지만, 전공자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패션에는 눈 돌릴 틈 없이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적 효용성'이 뛰어나 보이기 때문이다. 즉 패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왔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확장을 측면지원하고, 오늘날 많은 부분의 소비형태를 결정지었다. 또 패션은 수없이 많은 기호와 상징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의 섬세한 부분들에

이 책은 코드와 의복 시스템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패션과 신체, 그리고 일상생활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지은이는 소비자주의와 일상패션, 패션모델과 사진을 통한 신체의 이상화, 신체 정형을 위한 화장술, 패션과 젠더 사이의 관계, 노출 형태로서의 속옷과 수영복의 패션변화 등 패션의 핵심적인 매개체와 과정을 그려 보인다.



책갈피 산책

《패션의 얼굴》

패션의 이면에 숨은 자본과 인간 신체의 관계 밝혀

제니퍼 크레이크 지음 | 정인희 외 옮김
푸른숲/A5신/416면/18,000원

침투해왔다는 것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패션은 자기를 드러내는 능동적 과정

읽다 지질만 하면 나오는 지은이의 풍부한 문헌인용은 쉬어가는 코너 역할을 톡톡히 한다. "모델들의 얼굴 뒷편은 텅 비었다"는 폼하 발언에 발끈해서 "우리는 감정과 인성을 얼굴로 표현한다. 만약 당신이 시각에 호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외모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거기에 변명은 있을 수 없다"고 변론을 펼친 나오미 캠벨의 재치도 볼 만하다. "옛날에 패션 디자이너들은(실제로는 재봉사들) 단지 옷을 만들고 팔았으나,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에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오스카 드 라 렌타의 너스레에 대해 "디자이너들은 선입견과 편견에 영합해 환상의 표상들을 재순환시킨다"고 분석하는 식의 내용 전개도 박진감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패션을 이끌어온 '주체'가 전적으로 소비자본인 듯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 책장을 넘길수록 자본에게 조작당하는 문화,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적인 주체의 암울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방통행식으로 대중에게 던져지는 모범 신체, 습관과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소비문화, "속 들어간 불을 만들기 위해 어금니까지 빼는" 지나친 물신화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지은이도 그 부분을 염려했던지 "우리는 옷을 통해 몸을 입는다"는 전언을 덧붙이고 있다. 즉 의복과 신체를 상호존적인 것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패션이란 신체나 인물의 본성을 위장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능동적 과정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형성 테크닉이라는 부분도 음미해볼 만하다. —강성민 기자